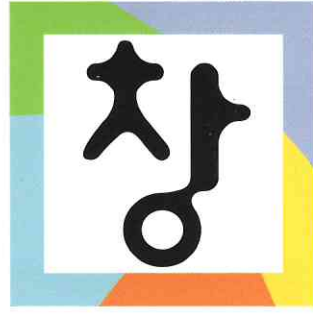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2012 3월호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성덕대왕 신종

긴 여운을 주는 신비하고 그윽한 종소리로 단연 으뜸인 이 종은 신라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공왕이 771년에 완성하여 성덕대왕신종이라고 불린다. 이 종은 처음에 봉덕사에 달았다고 해서 봉덕사종이라고도 하며,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본떠 에밀레종이라고도 한다.

통일신라 예술이 각 분야에 걸쳐 전성기를 이룰 때 만들어진 종으로 화려한 문양과 조각수법은 시대를 대표할 만하다. 또한, 몸통에 남아있는 1천여자의 명문은 문장뿐 아니라 새긴 수법도 뛰어나다. 종신에 2구씩 마주보는 4구의 비천상은 연화좌 위에 무릎을 세우고 공양하는 상으로서 한국비천상의 대표가 되는 조각수법이다. 이 종에는 “당시 세상은 금과 옥 같은 보물을 멀리 하고 문화를 숭상하였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문화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국보 제 29호.



04



06



10



18

복간호를 내면서

우리 재단 뉴스레터가 복간되어 이번 호부터 여러분께 다시 선보이게 됐습니다.

기존 웹진 발간으로만은 소통의 한계가 있어 책자와 웹진을 병행하여 발간키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름 '재외동포의 창'은 독자여러분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720만 재외동포와 모국이 서로 들여다보고, 창을 열고 대화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 경 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Contents 2012 3월호

02 한국의 얼 성덕대왕 신종

03 목차

소통마당

04 특집 동포 차세대교육·네트워크 확대

06 포커스 "우리 대한민국 장학생" 학업 전념 다짐

08 글로벌코리아 이은덕 과테말라한국학교 교장
'재팬드림' 장영식 (주)영산 회장

정보마당

10 칼럼 고향가는 길이 인생길이었습니다

14 지구촌 통신원 보스턴 한인 엄마들의 육아 이야기

과학강국 스위스에 '한인과학자협회' 출범

14 한민족 공감 이 대통령 혈맹 터키·산유국 중동3국 순방 등

16 한상칼럼 "상생 발전하는 한상네트워크 힘은 무궁무진"

17 OKF 뉴스광장 Korean.net 개편, 고객만족도 95% 등

참여마당

20 동포 문학 내가 사는 나라, 살아갈 나라

22 동포 이민사 국내 최초 이민 '하와이 한인'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24 나의 살던 고향 동백꽃길 따라 가는 봄나들이 - 여수

26 재단공지·독자후기



표지 이미지
2012년 재외동포 초창장학생 오리엔테이션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ww.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동포 차세대 교육 · 네트워크 확대

재외동포재단, 올해 힘차게 뚫다

재외동포재단(OKF)은 2012년도 사업예산을 확정했다. 한글교육 지원의 내실화와 장학사업, 차세대 네트워킹 등 차세대 육성사업과 더불어 올해 완료되는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코리안넷'이 명실상부한 동포사회와 모국 간 소통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정체성 함양 위한 '한글교육' 지원 강화

재단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한글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온라인 한국어교육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안'을 개선해 단계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효과높은 한글교육 시스템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교재가 부족한 해외 한글학교의 특성을 감안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한글교육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글학교 지원은 학교의 규모와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서 치등 배정하지만 학교당 평균 지원액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글학교 지원과 더불어 한글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교수법 연수를 시행하고, 연수와정을 마친 교사들은 한국어 교원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의 조선족 학교와 CIS지역의 고려인 학교에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해 민족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차세대 역량 강화

재단은 지난 연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차세대' 팀을 부활시켰다. 점차 현지화 되어가는 차세대를 끌어안아야 동포사회의 역량도 커지고 미래 전망도 밝아진다는 판단에서다.

- 1 동포재단은 2012년도에 동포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차세대대회를 비롯해 장학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 2 동포 차세대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한글교육' 지원이 강화된다. 사진은 중국 조선어 교원 초청연수회.
- 3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도 대폭 확대해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 4 재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상대회는 모국과 동포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왔다.

우선 장학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재단은 매년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우수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도 80여 명의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과 CIS 지역 동포 학생들에게는 현지 장학금 지원도 펼쳐오고 있다.

또한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주류사회에 진출한 차세대 인재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자긍심을 심어주고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을 넓히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차세대 대회를 거쳐 간 차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글로벌네트워킹을 형성해 상부상조하는 등 그 중요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부각되고 있다.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자라나는 한인청소년들의 거주국내 성공적인 주류사회 진출을 돕고 '모국은 나의 힘이고 후원자'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한인후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거주국 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지원하고자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3개 지역의 동포청년들을 대상으로 IT 직업연수를 실시한다. 특별히 올해는 멕시코 한인후손 3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모국체험연수를 가질 계획이다.

GKN사업

재단은 2009년부터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통합 주요 인물·단체DB 구축”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기조로 하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를 위한 코리안넷(www.korean.net) 구축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다국어 뉴스 서비스, K-POP, SNS서비스 등)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인회·한글학교 등 재외동포 단체가 운영하는 데 직접적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 제작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지역별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를 수집·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관기관 공동 활용 및 인재의 교차 활용 등 모국이 선진사회와 일류 국가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3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구축·완료되면 720만 재외동포가 하나로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재외동포 전문 포털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대회의 도약

재단은 모국과 동포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세계한상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한상의 모국 경제기여를 매년 확대해 왔다. 특히 '사이버 한상넷'을 통해 상시 비즈니스가 이뤄지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세계한상대회를 활성화시켜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는 등 한상 브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의 특성을 실린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개최한다.

이밖에 재단은 동포정책 제언과 다양한 동포사회의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연구팀을 신설해 중장기 사업개발에도 착수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타국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면서 모국 발전에도 헌신적으로 기여한 720만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며 “올해는 특히 모국과 재외동포가 소통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장]



“우리 대한민국 장학생” 학업 전념 다짐

2012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오리엔테이션



재외동포재단은 2월 22일 2012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들을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학사과정 소개 및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2012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에 대한 학사과정 소개 및 안내를 하는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2월 22일 재외동포재단(OKF)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에서 열렸다.

재단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산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6개국 총 171명이 장학생으로 재단 예산을 정부 장학금으로 받아 공부하고 있다.

이들 장학생은 거주국별로 중국(조선족) 48명, CIS(고려인) 11명, 미국 4명, 일본 5명, 유럽 9명, 아시아 19명, 중남미 19명, 기

타 국가 56명이다.

학사과정은 116명, 석사과정 45명, 석박사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9명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만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초, 중, 고등학교를 거주국에서 이수, 거주국의 국적,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재학 중인 장학생을 포함하여 92명의 장학생들과 OKF대학생 자원봉사단이 함께 자리해 선후배와의 정보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재단은 초청장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졸업 때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등 뒷받침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연말에 발족한 OKF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유학생들이 공항 마중에서부터 수강신청 등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생생활을 하려면 성적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포재단은 초청장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차세대팀의 이명재 대리가 유학생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설명회에 장학생 대표로 나선 박시우(볼리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학사과정)는 프레젠테이션 내용 중에 “학과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과 수업외의 장학생들 간의 인맥을 쌓는 것도 훌륭한 자산이며 이는 우리가 졸업을 하고 거주국으로 돌아가서도 중요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KF대학생 자원봉사단의 조엘레나(우즈베키스탄, 연세대 국제경영학과 석사과정)는 발표내용에서 “학과 수업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빠른 학과 과정에 적응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활용해서 한국이라는 사회에 잘 녹아드는 것도 장학생으로서 가장 노력해야하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인사말에서 “개정된 학사지침에 따라 장학생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모두 소정의 과정을 마쳐 거주국과 모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



“현우야, 나 기억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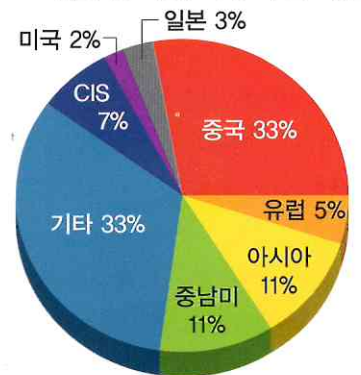
재단 직원과 초청장학생 10년만의 해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재단 차세대팀의 이명재 대리(사진 좌)가 10년 전 자신이 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현지에서 만났던 김현우 군(사진 우)을 초청 장학생으로 다시 만나는 특별한 해후도 이뤄졌다.

이날 초청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뜻밖의 특별한 해후가 이뤄졌다. 재단 차세대팀의 이명재 대리가 10년 전 자신이 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인연을 맺었던 코홀리개 소년 김현우 군을 초청 장학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 이 대리는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과정에 입학한 김 군이 그때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꼬맹이였다면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현우를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 재단 장학생 거주국별 비율





“ 정체성 확립 위한 교육 봉사에 매진 ”

이은덕 과테말라한국학교 교장

중 남미 북서쪽으로 멕시코 밑에 위치한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시에 한인 차세대에게 한글을 비롯한 민족문화를 가르치는 과테말라한국학교가 있다. 교사 15명에 학생 188명으로 12개 반을 운영하는 한국학교는 1990년에 설립됐다.

이은덕 한국학교 교장은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지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자유롭게 수업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테말라에는 1만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살고 있다. 이 교장은 “중남미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안전지침만 잘 지키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3년전부터 교장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는 이 교장은 “4년 전 학교 이름을 한글학교에서 한국학교로 변경했다. 한국어 만이 아니라 모국의 역사와 문화 등 정체성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주5일 근무가 아니라서 토요일에도 대부분 출근을 한

다. 사회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이 많음에도 학생들의 간식을 챙기는 등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과테말라 한국학교만의 자랑이다.

이 교장은 “지난해 한국학교 졸업생이 처음으로 동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서울대로 유학을 왔다”며 “동포 사회에서도 이제는 선진국 만이 아니라 모국으로의 유학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학교가 일조하고 있어서 교사들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 일본 유통업계 최강자 되겠다 ”

‘재팬 드림’ 장영식 (주)영산 회장



일 본 유통업체 (주)영산(永山·에이산)의 장영식(45) 회장. 그가 1993년 26세의 나이에 현해탄을 건널 때 수중에 지닌 돈은 300만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 그는 신용을 무기로 일본인들의 텃세를 극복하고 (주)영산을 연간 2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일궈냈다.

장 회장은 현재 일본 최대 전자상가인 도쿄의 아키하바라와 오사카, 삿포로, 사카이미나토 등 도심 4곳과 이바라키를 비롯해 주요 공항 6곳에 ‘영산 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영산의 본사가 있는 아키하바라의 4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장 회장은 유통매장 운영과 함께 신용으로 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일본 정부와 기관 등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자위대에 한국산 세탁기를 납품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 진출한 ‘뉴커머’ 가운데 가장 성공한 한상

으로 꼽히는 장 회장은 “현재 공항 2곳에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 뛰고 있으며, 곧 성사가 될 것 같다”고면서 “앞으로도 주요도시와 공항에 매장을 계속 오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장에 가전제품과 화장품 등 일본산뿐만 아니라 한국산 상품도 판매해 ‘애국’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인터넷 쇼핑물 ‘코리아게이트웨이’의 영입이 탄력을 받는 등 대지진 이후 경영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는 “일본의 주식시장도 곧 호전될 것이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자신했다.

장 회장은 “시간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다 보니 신용이 쌓였다”며 “여기에서 다양각색의 일본인들과 만나기 위해 여러가지 취미생활을 익힌 것도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쿄한국학교 육성회장을 맡아 2~3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정성을 쏟고 있으며 ‘태산장학회’도 만들어 10년째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장**



고향가는 길이 인생길이었습니다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望鄉歌)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사할린 현장 5개 한인단체 단체장들의 한국방문이 있었다. 그간의 오랜 불신과 분열을 극복하고 1세대 중심에서 2세 중심의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되고 있는 사할린 한인동포사회.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한인문제 관련 5개 한인단체 단체장이 뿔뿔 뿔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인 역사상 처음이라 한다.

신임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용군 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뻘뻘한 일정에도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회 정부 관련기관을 찾아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법제화를 통해 사할린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한인1세 및 그 후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1월 4일~11일 KIN(지구촌동포연대) 관계자들이 눈으로 뒤덮인 사할린 오지 현장들을 찾아 남은 1세대들을 만났을 때도 이들은 같은 목소리였다. 일본에 의해 70여 년 전 강제로 내몰리고, 물설고 낫선 수역만리 떠나면 소비에트사회에서 우리말글 배움의 기본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사할린 조선인들의 운명이란!

영하 28도로 떨어진 어느 날, 우리가 찾은 사할린의 체홉의 1세 할머니들의 한스런 표정이 생생하다. "자식들 다 버리고 영주귀국하면 무슨 소용인가" "사할린으로 끌려와 홀아비로 살다가 조선 땅에 남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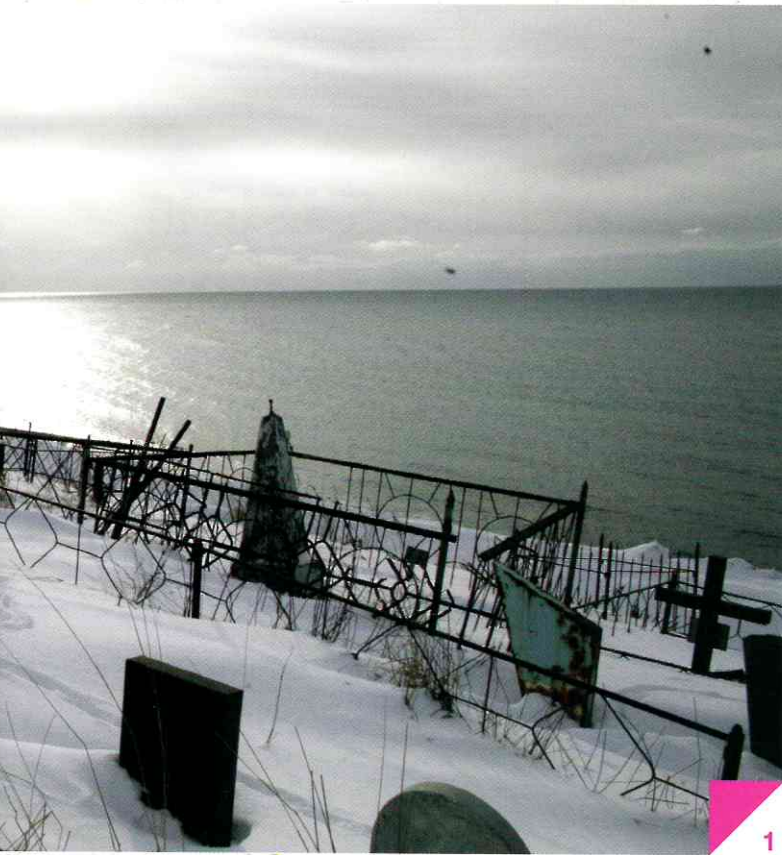
둔 사람들 그리다 독한 술 마시고 병 걸려 죽은 사람들..."

지난 해 설 전날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도 1세 한인동포들은 같은 애기를 꺼냈다. "같은 강제동원 피해잔데 한국 국적이 있으면 위로금 받고 여기 국적이면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받고 싶어서 러시아국적 받았습니까? 그럼 왜 피해자 조사는 했습니까?"

사할린에 남은 한인동포들의 아픈 사연이 담긴 수백 통의 자필 편지를 가슴에 품고, 1년 전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다. 사할린에 남은 3만5천 한인동포들은 지금도 "우리는 정녕 어느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까?"라며 울부짖는다.

이들의 지난 세월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조국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사할린까지 강제로 끌려왔다. 그들로부터 모진 학대도 당했다.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뿐, 이번에는 철의 장막, 소련에 억류되는 신세가 되었다. 조국은 광복되었지만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소식조차 알 수가 없다. 우리들은 끝내 이 얼어붙은 땅 사할린에 뼈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가!" 20여 년 전 사할린주한인노인협회를 이끌었던 고 박해동씨는 많은 한인1세대들이 이렇게 말하며 죽어갔다고 술회했다.

강제동원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 보면, 자작나무와 끝없



1

이 펼쳐진 평화로운 바다, 겨울 설경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그토록 '귀국선'을 기다리던 이들은 이제 망자(亡者)가 되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자들'로 남았다.

지금엔 인천공항에서 사할린까지 직항로가 생겨 매일 비행기가 뜨고 3시간이면 남사할린 3만5천명의 한인동포들을 만날 수 있다. 한인1세대들이 한스런 생을 마감하면서도 그토록 그리던 이곳 '고국'에서 태어난 나로서는 이만한 호강도 없다고 해야 할는지.

고국으로의 대규모 영주귀국사업이 시작된 2000년 전후부터 2011년까지 약 4천여 명이 고국의 각 지역으로 영주 귀국했고 이 중 약 1천여 명이 고국에서 죽음을 맞이해, 현재 약 3천여 명의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전국 21개 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 45년 해방이후 4만3천여 명으로 추산되던 사할린 잔류 한인1세대들은 모두 주검으로 남았고 이제 약 1천500명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 90세 가까운 나이의 살아있는 한인 1세대, 향후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면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겠다.

2011년 해방 이후에 최초로 한국정부 차원에서 해외 용역사업으로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묘지 한인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천593명의 조선인 묘비를 찾아냈다. 남사할린에만 적어도 53개의 크고 작은 공동묘지가 있다하니 동토의 땅에 잠들어 있는 한인 망



2

1 동토의 땅 사할린에 한인세들이 묻힌 묘지. 정부는 지난해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묘지 한인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천593명의 조선인 묘비를 찾아냈다.

2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자신들의 아픈 사연이 담긴 편지를 적고 있다.

자(亡者)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겠다. 1년에 절반이 겨울인 사할린이 다 보니, 돌과 나무로 된 수십 년 된 묘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가능한 작업이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정부차원에서든 민간차원에서든 이 역사적 고통을 안고 살아온 사할린 동포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할린 현지에 남은 한인 1세대들에 대한 생활 지원, 부모를 따라 귀국을 원하는 2세대들에 대한 정착지원, 사할린 현지 한인 추도시설(역사기념관 포함) 마련, 식민지시기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 가입시킨 연금·보험금 받지 못한 채불입금 등을 확인해 돌려받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이게 사할린 특별법 내용의 핵심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말, 65년 한일협정에서 의제화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무대책을 강하게 추궁한 바 있고,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피해자 문제도 정확히 같은 문제인 만큼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싶다.

"고향 가는 길이 인생길이었습니다"라는 이 슬프고도 오랜 절규에 한국의 시민사회도 700만 해외동포사회도 더 이상 방치 말고, 올해부터라도 전 국민 모금이나 범민족적인 구체행동으로 촉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더 늦기 전에. **창**

보스턴 한인 엄마들의 육아 이야기



보스턴의 한 미술관에서의 새해 모임. 아이들도 엄마들도 모처럼 나들이에 신이 나 있다. 인터넷 육아 카페를 통해 만난 이 모임의 빠지지 않는 주제는 '육아와 한글교육'이다.

“뽀로로가 최고예요, 아기들은 울다가도 뽀로로를 보면 울음을 푹 그칩니다.”

미국 생활 15년 차에 늦깎이 엄마가 된 준이 엄마는 ‘뽀로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미국 생활을 갖 시작한 두리 엄마와 민수 엄마가 뽀로로 열풍을 설명하느라 신이 났다.

“뽀로로를 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두리는 엄마보다 뽀로로가 더 좋대요.” 파란 눈의 이자벨이 우유병을 밀쳐내자 이자벨 엄마도 이내 수다에 꺼든다.

“정말 신기하네요. 뽀로로가 미국 아기들의 울음도 그치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는 ‘엘모’라는 녀석이 있긴 하지만.”

한국 말이 약간 서툰 한인 2세인 솔이 엄마가 “세사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의 주인공이죠? 우리 아이도 좋아하지만 울음 멈추게 할 정도는 아니던데”라며 거든다.

“그럼 우리, 미국인을 상대로 자랑스러운 국민 캐릭터 뽀로로 전도사 한번 해볼까요?”

이들 다섯 엄마들은 인터넷 육아 카페를 통해 만났다. 한인수가 적은 보스턴에서 자기 아이에게 또래 친구를 만나게 해주려면 한국에서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법이다.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미국에 온 동기와 목적도 다르지만 자녀 키우기라는 공동 관심사가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육아 이야기는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제이다. 두리 엄마와 민수 엄마는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크다. 미국 생활 초보이다 보니 궁금한 것도 한 두 개가 아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솔이 엄마는 이들 엄마들 가운데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조목 조목 아는 것이 많다. 그녀는 2002년 부시 전 대통령이 사인한 아동낙오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 Act)으로 인해 일정부분 개선이 된 면도 있지만 아직도 학군에 따른 공부 편차가 심하고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구제할 방법들이 부족해 논란이 많다고 설명한다.

다섯 엄마들 모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글 교육이 필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엔 남편들도 모시고 옵시다.” 이구동성으로 쏟아낸 말이다.

남편들 중에는 서양인도 있고, 한인 2세 교포들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한국 국적의 방문자도 있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처럼 여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려 있다. 새로운 세계에서 아이끼리 친구가 되고 그 부모와 다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이 잠시나마 고국을 떠난 외로움을 지울 수 있게 만든다.

양수연 보스톤캡 전 편집장

과학강국 스위스에 ‘한인과학자협회’ 출범



재스위스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인 심임보 로잔공대 교수는 “한국과 스위스 두나라의 과학기술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물리,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강국인 스위스에 한국인 과학기술자협회가 출범했다.

재스위스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스위스과학; KSEAS)는 2월 25일 오후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한국인 과학기술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창립식에는 박상대 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장, 석준원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한만옥 재오스트리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심임보 스위스과학 회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최영한 박사, 성운모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등이 참석했다.

노벨 물리 및 화학상 후보로 여러 차례 거명됐던 취리히 연방공대(ETHZ) 하태규 교수는 이날 양자화학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는 140여 명에 달한다. 취리히대학(50명), 로잔공대(35명), 유럽입자물리연구소(30명) 등 대학과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자들은 지난해 9월 24일 로잔 연방공대에서 열린 스위스 한인 석학 세미나를 계기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협회 설립을 추진해왔다

스위스과학 회장인 심임보 로잔공대 교수(응용수학)는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과 스위스 양국의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인구 790만 명에 불과한 스위스는 그동안 29명의 노벨상 수상자(평화상 제외)를 배출해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과학 강국이며, 기초과학을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업과 정밀기계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심 교수는 “스위스는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과학강국이고 취리히대학과 로잔공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있지만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이공계 학생들이 서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과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유럽으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며 한국 기초과학 분야에 더 많은 해외 유학생이 나오길 희망했다.

심 교수는 인적교류 확대에 대해 “한국의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이 유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노바티스 같은 기업과 로잔공대 같은 스위스 대학도 한국 이공계 학생들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창**

맹찬형 연합뉴스 스위스 특파원

이명박 대통령 혈맹 터키·산유국 중동3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이 2월 9일 도하 카타르 왕궁에서 셰이크 하마드 카타르 국왕과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선 산유국 3개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왕실과 정부로부터 이란 제재 시 부족분만큼의 원유를 우리나라에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사우디와 카타르·UAE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공급한다. 특히 사우디산(産) 원유는 우리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을,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는 우리 LNG 수입량의 최대 비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세계 재정위기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에 대비, '제2의 건설 특수'가 기대되는 중동 지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중동 산유국들은 현재도 호황을 누리는 데다 최근 국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건설·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됐던 '오일 달러'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사우디·카타르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일부 경제·동

상 분야에 제한됐던 협력 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관계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UAE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50만호 건설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과 국영기업 아랍코의 140억 달러 상당 프로젝트 등 각종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카타르도 루사일 신도시 개발과 700억 달러 규모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했고, 에너지·

산업협력 양해각서(MOU)와 향후 21년간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도 우리 정부와 체결했다.

이 같은 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카타르는 우리나라와 정상 간 '핫 라인' 및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설치키로 했으며,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중동 국가 중 우리와 가장 가까운 UAE도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아부다비 유전 개발 우선참여 협약이 진전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과 아랍을 잇는 '관문'인 터키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성과물을 두 가지나 확보하면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지지부진했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상반기 내에 타결키로 하는 동시에, 사실상 중단됐던 한국 기업의 터키 원자력 발전소 수주 협상을 재개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터키는 시간이 갈수록 중동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다 경제성장 속도도 세계 상위권이어서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점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다.

녹색성장 '초정권' 발전 기틀 마련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2012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현 정부를 넘어서까지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할 기틀을 구축한다.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위원장 안경률)는 2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3월에는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녹색성장이 미래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청와대 보고에서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녹색성장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나온 중장기 비전"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물론 다음 세대, 다음 60년까지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위는 녹색성장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법·제도 확립 ▲녹색성장 지속추진체제 강화 ▲녹색성장 저변 확대 및 참여기반 강화 ▲녹색생활로 전환 ▲녹색기술·산업발전 가속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 등 7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50~100년 이상 지속될 과제"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부처의 녹색성장을 담당할 조직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저변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재외공관장회의 '혁신과 봉사' 다짐

외교부 혁신과 대국민 봉사외교, 글로벌 코리아 비전 실현 등에 초

점을 맞춘 2012년 재외공관장회의가 2월 20~24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총 119명의 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관장들은 회의 기간 올해 외교부 4개 핵심 추진과제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세계 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공관장들은 특히 씨엔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혁신과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방안 ▲맞춤형 개발협력체제의 선진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재외공관장회의는 하나원과 안산시 이주민센터, 파주시청 민원센터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4일에는 재외공관장-기업인 1:1상담회도 열렸다. 이번 상담회에는 105명의 각국 대사와 288개 기업대표가 참여해 670여건의 상담을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역량 강화, 복무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기구를 신설할 것"이라면서 "외부의 신선한 시각 등을 참고해 쇄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창**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재외공관장-기업인 1:1상담회에서 각국 대사들이 기업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105명의 각국 대사와 288개 기업대표가 참여해 면담을 가졌다.

“상생 발전하는 한상네트워크 힘은 무궁무진”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11년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75개국에 72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독립운동 혹은 전쟁 등으로 조상들의 거주지가 변동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현지에서 적응하는 동포도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이민을 선택해 이제 그곳에 정착한 동포들도 다수 존재한다. 한반도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부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우리 동포들이 수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뿌리를 내린 우리 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공통분모로 교류하며 상호 비즈니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사업이 바로 '한상(韓商)네트워크'이다. 특히 분야를 한정 짓지 않는 모든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기조직된 여러 동포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한상대회는 작년 10차대회까지 매년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한상네트워크는 한민족 동포간의 교류 속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사업이다. 예를 들면 재미동포와 재일동포가 서로 제품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며 각각 현지사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재중동포와 중남미한상이 교류하며 상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 또는 우수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그 중심에 한상네트워크가 있길 기대하며 기획된 사업인 것이다.

우리 재단은 한상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해마다 '한상대회'를 준비하고, 한상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작용하며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지 않고 상시 지속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무한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며, 유럽의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세계의 각 국가는 경제외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지역경제통합의 특혜를 우선차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최초로 한-칠레 FTA를 타결한 이후, EFTA,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등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 발효를 추진했으며 이제 미국과의 FTA가 3월 15일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공동체 시대에 있어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동포들의 역할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일찍이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다원화, 네트워크화 되어가며, 이 가운데 민족개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실제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일반화되고,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 연결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는 민족 간 협업과 네트워킹이 성공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피터드러커는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중심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가장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은 순수한 ‘경험의 공유’일 수도 있다. 어떤 논리도 필요없이 말이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지각이다.

한상대회는 이제 10년차가 넘어간다. 올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한상대회는 참가자들간의 네트워킹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한민족'이라는 공감대로 나의 비즈니스를 논하면서도 파트너의 성공도 함께 고민해주는 이른바 진정한 한상네트워크의 경험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상**

Korean.net 개편, 고객만족도 95%

72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코리아넷(www.korean.net) 서비스가 2012년 1월 9일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은 그 간의 불편 사항 해소뿐만 아니라 뉴스 서비스 연계, 다양한 생활지원형 콘텐츠 지원 등의 재외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와 문화정체성까지 확보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다

K-POP, SNS 등 문화·차세대 서비스 제공



우선 접근의 용이성을 높였으며, 언론사별 동포 관련 뉴스 연계 확장 및 재외동포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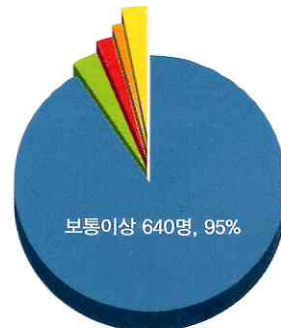
특히 재외동포의 주류가 2~3세대 동포들로 변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사인 K-POP 사이트를 신설하였으며 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한 명사인터뷰, 다큐멘터리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도 추진 차세대 재외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환경의 재외동포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m.korean.net)도 금번 개설했다.

고객만족도 “매우 만족”

재단은 코리아넷의 개편된 서비스의 수준 측정을 위하여 코리아넷 회원 673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코리아넷 개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재외동포들의 개편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상 9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조사에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리아넷이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어 교육 ‘스터디코리아’ 새 단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사이트 스텐디코리아(http://study.korean.net)이 2012년 2월 27일 새롭게 개편됐다.

새롭게 개편된 스텐디코리아에서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한국어 학습 콘텐츠 서비스를 실시한다.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와 비슷한 또래의 주인공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며, 스토리텔링 형식의 교수요목으로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교사용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학부모에게 학생용 콘텐츠 지도안을 제공하여 좀 더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자용 콘텐츠

와 동일한 원고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 팁, 과제물 학습지, 한국문화 소개 및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한다.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하여 2002년부터 스텐디코리아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만 4천여 명의 회원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제13회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3월 7일 열고 대회 일정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제13회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 26일부터 3박4일 동안 서울 웨라톤위키힐 호텔에서 열린다.

세계한인회장대회사무국은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 대회 준비 모임인 운영위원회를 열고 개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의 공동의장은 장흥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맡았으며 전 세계 한인회장과 대륙

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400여명이 방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정당초청 재외동포 정책포럼과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및 특강, 지역별 현안 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홍영표 대양주한인회총련 회장, 승은호 아시아한인회총련 회장, 박성길 아중동한인회총련 회장, 박종범 재유럽한인총련 회장, 정효권 재중국한인회 회장, 김근하 캐나다한인회총련 회장, 김정수 동포재단 기획이사 및 올해 대회 공동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국답기의 일환으로 대회에 참석하는 한인회장에 게 모금을 해서 장학 사업에 쓰기로 결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중순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를 공고하고, 4월초 참가신청을 받아 5월초 명단을 확정한다. 참석 대상은 현직 한인회장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료는 본인이 내고 체재비는 재외동포재단이 부담한다.

재외동포재단-평화시장 MOU, 전통시장 활성화 동참



재외동포재단과 평화시장은 2월 20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3번째부터 흥남식 평화시장 회장, 장주홍 평화시장 대표이사, 김경근 재단 이사장과 김정수 기획이사.

재외동포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재외동포재단과 평화시장(주)(대표이사 장주홍)은 2월 20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MOU)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매월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은 '전통시장 자매결연' 및 '전통시

장 가는 날'을 더욱 확대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 궁극적으로 서민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품구매 및 장보기 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이며, 평화시장은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평화시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토록 유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한글·역사 교육과 내국인 인식제고 필요" 제 5기 재외동포재단 자문회의 구성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월 28일 재외동포 관련 현안과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제5기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위원장으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를 선출하였으며, 위원은 학계, 언론계, 재외동포, 관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인사 12명으로 구성하였다.



사진 앞줄 우측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국, 김경근, 김영희, 김희철, 임영상, 오영훈, 김종완, 권순범, 이춘선, 하용화, 구성진, 유철준, 전병현, 곽채기, 김정수.

이날 위촉식 겸 1차 자문회의에서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재외동포에 관한 이슈가 점차 많아지고 재외선거 등 재외동포들의 역량과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 관련 많은 경험을 가진 자문위원들이 재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자문위원장은 “53년간의 기자생활, 해외특파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인정체성 강화를 위한 차세대의 한글·문화·역사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 위원장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위 원 : 이종원(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권순범(KBS 시사제작국장), 임영상(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곽채기(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희철(재중한국국민회 고문), 하용화(전 뉴욕한국인회장), 김재국(전 주시애틀총영사), 이춘선(전 주스페인대사), 구성진(중앙아시아피 전문위원), 전병현(월비스 대표), 유철준(우리건설 사장)

멕시코 한인후손 초청연수 수료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2011년 멕시코 한인후손 직업훈련연수'가 지난해 9월 23일부터 2012년 2월 22일까지 5개월 과정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HRD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멕시코 한인 후손 12명(남 4, 여 8)이 참석했으며 연수기간 동안 컴퓨터 조작 등 IT 관련 기술을 비롯해 자동차 정비 등을 5개월 동안 배웠다. 또한 포스코, 현대자동차와 월드컵 경기장, 경복궁 등 모국의 선진문물을 체험하고 한국어도 배워서 한민족의 정체성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자동차 정비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공구 사용법에서 엔진 분해 조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리 노하우를 배웠다. 이 기술은 멕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2011년 멕시코 한인후손 직업훈련연수'가 5개월 과정을 마치고 2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HRD센터에서 수료식을 열었다.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부터 좌측으로 김종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마르테 오르티스 데 로사스 주한 멕시코 대사.

시코로 돌아가서 자동차 정비소에 취업하거나 직접 차릴 수도 있고 관련 업계에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T 기술교육은 연수생들이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과정이다.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킹 시스템, 웹디자인, 웹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멕시코 한인 이주 100주년을 기념해 처음 실시된 이 초청연수는 5년 간 총 105명의 차세대 한인들이 모국을 경험하는 동시에 자동차정비, IT 등의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지진 피해 도운 센다이 총영사관 '올해의 외교인상' 수상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전 센다이 총영사)

지난해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던 지진 재앙의 한복판에 있던 센다이의 한국 총영사관이 지진 긴급 피난소가 되어 한 달 동안 동포들을 정성껏 돌본 공로를 인정받아 영산재단(이사장 이홍구 전 총리)이 주는 '올해의 외교인상'을 수상했다.

당시 총영사로 교민 구호를 지휘한 김정수(60)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수상 소감에서 “총영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은 여진과 방사능의 공포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피해자들을 돌봤다”며 “사명감 하나로 혼신의 노력을 한 15명의 직원과 물심양면 협조해준 동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상은 국익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공헌한 직업 외교관과 민간 인사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신설됐는데 개인이 아닌 기관이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

나는 일본의 도쿄에 살고 있다. 유치원에 다닐 때 까지는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잘 없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학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이곳 도쿄에서도 한국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작년 방학,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갔다. 내가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계신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먹기 싫은 것도 지꾸 먹으라고 하시지만, 나는 할머니가 좋고, 할머니가 계신 우리나라가 좋다.

즐거운 방학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도쿄로 돌아가던 날, 할머니는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애써 눈물을 감추셨다. 다시 혼자 사시게 될 할머니를 생각하니, 나도 자꾸만 눈물이 났지만, 할머니처럼 감추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일본의 도쿄에서 태어났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내 고향은 일본의 도쿄이고, 그냥 고향에서 살고 있다. 엄마와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한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도쿄로 유학해서 공부를 하던 아빠는, 졸업 후에 도쿄에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던 엄마도 아빠와 결혼해서 도쿄로 왔다고 한다. 엄마와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도쿄에서 살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에, 언젠가 내가 자라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면 계속 일본에서 살 지,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살 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살 지, 내 스스로 결정하라고 한다.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살기로 했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를 믿으니까...”

그렇다면...아빠에게 똑같이 물어 보았다. 아빠는 그냥 웃으며, “믿는 데가 있으니까...”라고 대답했다. 궁금했다. 고향을 떠나 아빠가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힘, 아빠가 믿는 데는 어디일까?

내가 사는 나라, 살아갈 나라

서기윤 제13회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초등)부문 대상(일본)

어디에서 살아갈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힘이 들 때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할머니의 나라,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지난봄의 일이다.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근처 학원에 갔는데, 갑자기 ‘쿵’ 하고 건물이 흔들리며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진이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일단 책상 밑에 숨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달랐다. 몇 초만 무서움을 견디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끝나던 지진이, 몇 분씩이나 계속되는 듯이 느껴졌다.

선생님은 모두들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하자고 하셨다. 거리에는 건물에서 빠져나온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또 땅이 흔들렸다. 옆 건물 벽에서는 타일이 떨어졌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감쌌다. 눈물이 나왔다. 모두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책에서 나는 것 같은 쿼퀴한 냄새가 났다.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고, 평화롭던 내 교도교는 그 날 갑자기 변해버렸다.

지진은 계속되었고 시커먼 바닷물이 넘쳐 사람들이 쓸려가고, 불이 났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했다.

뒤적이다가 이제 겨우 잠이 든 듯 했는데, 엄마 아빠가 깨우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다. 밤새 바람 방향이 바뀌어 내가 살고 있는 도쿄까지 방사능 물질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엄마와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쿄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쫓겨나듯 집 밖으로 나갔다. 어두컴컴한 하늘과 희미한 가로등. 차갑고 시큼한 새벽바람에 코끝이 찡찡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다.

고생 끝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슬픔이 밀려왔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잠이 밀려왔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생각났다.

도쿄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화려한 불빛이 밝고 아름답던 도쿄의 저녁은 놀라울 정도로 어둡게 변해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우리들을 불러놓고 이제 곧 도쿄를 떠나서 이사를 할 거라고 말했다. 나도 동생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는 소리를 질렀다. 계속 눈물이 나왔다. 왜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잘 몰랐다. 그냥 학교와 친구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들의 반응에 놀랐는지 엄마와 아빠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결정하자고 했다.

몇 개월이 지났고, 더 큰 일은 터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쿄에 살고 있다. 아빠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살기로 했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아빠는 여전히 웃으며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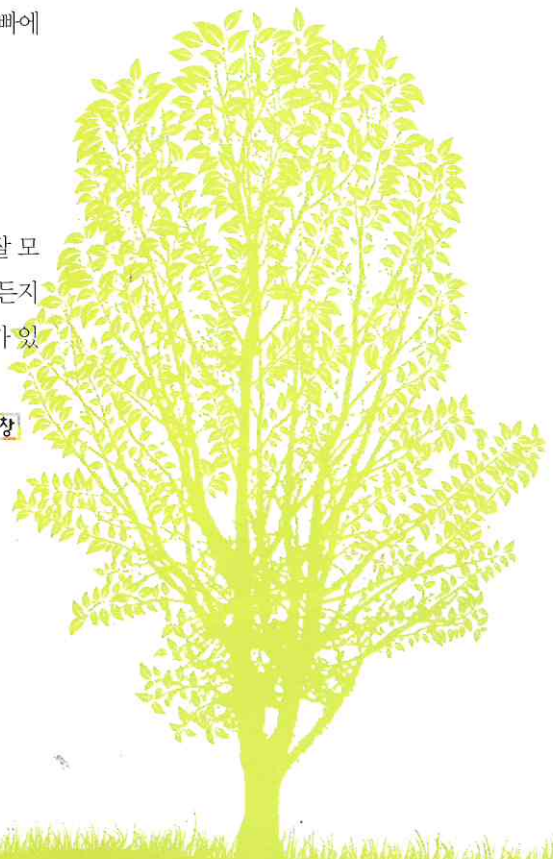
“믿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커서 어디에서 살아갈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디에서 살아가든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힘이 들 때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할머니의 나라,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데가 있으니까...

무언가 든든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 한 아빠의 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창**



미야기현 게센누마 시의 지난해 지진피해 모습(하)과 복구 1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상)



국내 최초 이민 '하와이 한인'

차별 딛고 성장, '독립운동' 후원

19세기 후반 우리나라는 서구 열강의 조선 진출에 따른 이권 개입 경쟁으로 많은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기쁨으로 인해 혹독한 굶주림이 계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은 빈곤과 불안정한 정세를 벗어나려던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하와이로 이민을 결행하게 되었다. 당시 하와이에서는 설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조선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됐다.

1902년 12월 22일 월요일, 하와이 첫 이민단 121명이 인천 제물포를 떠났으나 일본 나가사키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19명이 탈락, 102명만이 갤릭호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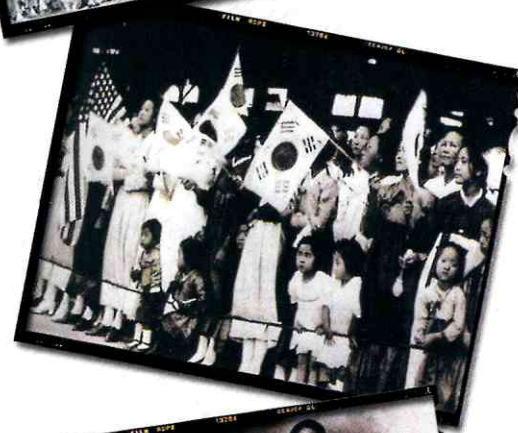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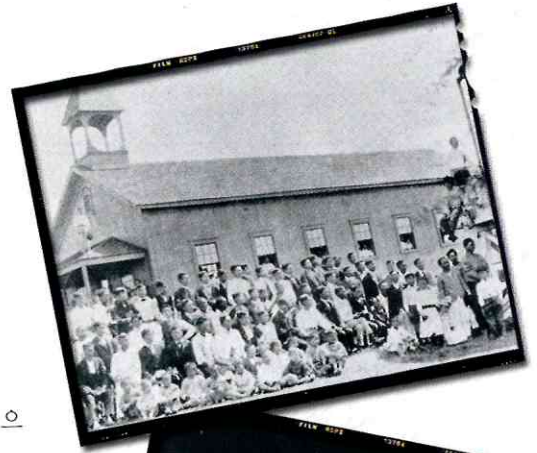
이들은 이민 공고문과는 달리 짐승우리라 다름없는 판잣집에서 기거했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0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다. 임금은 남자가 하루 1불25센트, 여자가 50~60센트를 받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저축하고, 본국에 송금하면서 다른 이민자들보다 근면 성실하게 일했다.

대부분 노총각이던 그들을 위해서 소위 사진신부도 등장했다. 사진으로 선을 보고 신부들이 하와이로 건너온 것이다. 그들은 많은 고초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한인사회 안으로 안정되게 적응했다.

이민사에서 주목할 점은 1세대들이 분연히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그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이를 모아 하와이와 중국 등지의 독립운동 단체로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한인들의 생활이 점차 안정을 찾았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하와이가 군수품 특수를 누리면서 한인사회도 크게 성장했다. 현재 한인인구는 2만5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하와이주 대법원장, 군 장성, 고위 공무원 등 주류사회 진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인들은 광복 후 이민의 출발지이자 고향인 인천에 대학을 세우자는 뜻으로 수십만 달러를 모았고 인천과 하와이의 유대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 인천의 '인' 과 하와이의 '하' 를 따서 학교 이름을 인하대학으로 지었다. **창**



“ 첫 이민자가 호놀룰루에 도착한 1월 13일을 기념해 이 날을 연방정부는 '미주한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영남 / 호남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을 꼽으라면 ‘지방색’ 이라든가 ‘지역감정’ 과 같은 것이다.

‘영남 지방’ 은 경상남북도를 가리키고, ‘호남 지방’ 은 전라남북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것이다.

우선 ‘영남’ 이라는 말은 ‘재령(嶺) 자와 남녘 남(南) 자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대관령이 남쪽이 아니라 ‘조령’ 다시 말해서 문경 새재의 남쪽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남’ 이라는 말은 ‘호수 호(湖) 자와 남녘 남(南) 자로 이루어졌다. 금강 이남 지역을 가리켜서 ‘호남 지방’ 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호남 지방’ 이라는 말은 원래는 공주나 부여 같은 충청도의 일부와 전라도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재 행정구역상 전라남북도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것이다.

당나귀 / 나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옛날 동요 가운데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 가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하고 부르던 노래도 있다. 이 동화와 동요에 각각 나오는 ‘당나귀’ 와 ‘나귀’ 는 무슨 차이가 있는 말일까?

‘당나귀’ 는 말과에 속한 짐승인데 아프리카 야생종을 가축화한 것이라고 한다. ‘당나귀’ 는 체질이 강해서 병에 잘 안 걸리고 참고 견디기를 잘해 부리기에 알맞은 가축이다. 우리나라에는 당나라를 거쳐 들어왔는데 ‘당나귀’ 라는 이름은 바로 당(唐)나라에서 들어온 나귀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당나귀’ 를 줄여서 그냥 ‘나귀’ 라고도 부른다. 결국 ‘당나귀’ 와 ‘나귀’ 는 같은 동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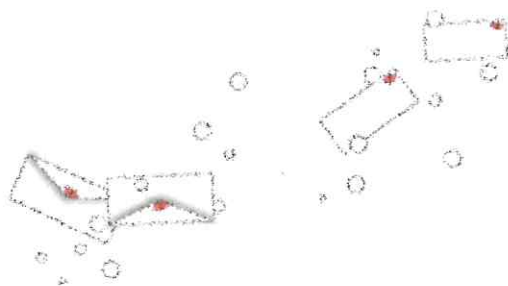
벌초 / 금초 / 사초

우리 속담에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와 별 관계가 없다는 듯이 하는 등 마는 등 형식적으로 성의없이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벌초(伐草)’ 라는 말은 무덤의 잡초를 베어서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보통 한식 때나 추석 때 또는 기일에 맞춰서 성묘하러 가곤 하는데, 성묘 가기 전에 벌초를 하게 된다.

이 ‘벌초’ 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으로 ‘금초’ 와 ‘사초’ 라는 말이 있다. ‘금초(禁草)’ 라는 말은 ‘금화벌초(禁火伐草)’ 라는 말의 준말이다. 즉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사초(沙草)’ 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떼를 입혀서 잘 다듬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추석 전에 산소의 풀을 깎는 일을 ‘벌초’ 라고 하고, 그리고 한식 때 하는 벌초를 ‘금초’ 라고 할 만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덤에 불조심을 한다는 뜻은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이 두 단어를 구별해서 쓸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창**



동백꽃길 따라 가는 봄나들이

2012 세계박람회 준비하는 천혜의 도시 여수

한반도 남해안 정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여수(麗水)는 317개의 크고 작은 섬과 2개의 해상국립공원이 있는 천혜의 해양관광수산도시이다. 오동도와 동백꽃축제로 떠올릴 수 있는 여수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은 세계 3대 축제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돌산대교는 뒤로는 하나씩 불 밝힌 도심의 건물들이 무대의 배경조명이 되면서 알록달록한 조명으로 인해서 여수의 명물로 사랑을 받고 있다.



1



2

1 2012 여수 세계엑스포 주요 시설이 들어설 여수 오동도 전경.

2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떨어진 자점에 우뚝 솟은 백도는 무인도로 바람과 파도가 만든 바위가 아름다운 섬이다.

새해 아침이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향일암과 커다란 돌들이 해안을 점령해 낭만적인 풍광을 전해주는 무술목유원지, 고즈넉한 방죽포 해수욕장, 굴 구이 거리와 회센터 그리고 코끝을 뚝 찌는 알싸한 향기가 일품인 갯김치, 돌산대교를 건너 해안 도로를 따라 한 바퀴 돌게 되면 돌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자연스럽게 맞부딪치게 된다.

남녘의 항구도시 여수는 그렇게 풍광이 좋다고 느껴지는 곳에 차를 멈추고 바다 쪽을 향하기만 하면 그곳이 무술목이고, 향일암으로 향하는 길이 되고, 방죽포 해수욕장이 된다.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다. 서도, 동도, 고도 등 세 개의 섬은 팔을 동그렇게 두른 듯 바다를 감싸고 있어 섬 가운데 바다는 엄마 품속의 아기처럼 편안해 보인다.

거문도를 찾아왔다면 백도는 꼭 들러야 할 코스, 거문도 동쪽에 39개의 무인군도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절벽의 모습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섬이 많아 100개 정도 된다 하여 백도(百島)라 했는데 섬을 헤아려보니 1개가 모자라 '한일(-)'의 한 자를 빼니 '흰백 자(白)'가 되어 백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바다가 갈라지는 곳, 사도 섬 7개가 'ㄷ'자로 형성된 곳으로 정월

대보름 전후로 본도, 추도, 중도, 증도, 장사도, 나끝, 연목 등 7개가 연결되는 장관이 연출된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날 풍이를 기원하는 영신제가 열린다.

서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 돌산대교는 화려한 조명으로 휩싸인다. 시간이 밤을 향해 갈수록 철재가 이루던 원래의 윤곽은 어둠에 묻히고 파랑, 노랑, 초록, 빨강, 분홍의 불빛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매콤한 서대회는 빼놓을 수 없는 여수의 맛이다. 서대가 많이 잡히는 여수와 경남 남해 등 남해안에서는 예로부터 서대가 제사상에 꼭 올랐고, 말린 후 찌서 먹거나 매운탕을 했지만 요즘은 야채를 곁들인 회무침도 유명하다.

가시가 있고 줄기가 질기며 매운 맛을 내는 다른 지방의 갓과 달리 돌산갯김치는 연하고 부드러운 갯김치 중의 최고로 꼽히는 여수의 특산품이다. 단백질 함량과 무기질, 비타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여수의 대표적인 축제인 오동도 동백꽃 축제는 매년 3월 초에 열린다. 동백가요제를 비롯해 동복 포도존 경연, 동백설화 퍼포먼스, 동백꽃 단막극 이벤트, 해양 레이저쇼, 해상퍼레이드, 우수농산물 시식 판매, 동백기름 및 비누 전시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또 진달래가 붉어 붙는 듯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매년 4월초에 중흥동 영취산 일대에서는 진달래축제도 열린다. **창**



- 3 한려해상 국립공원인 전남 여수 오동도에 최근 동백꽃이 만개해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 4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물로는 돌산갯김치, 고들빼기김치, 유자, 매실장아찌 등을 비롯해 젓갈, 반찬, 굴, 고막, 전복, 건홍합이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개최

1천여 명 모국서 역사·문화 체험과 교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오는 7월 10일(화)~16일(월), 24일(화)~30일(월)까지 2차에 걸쳐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인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는 매년 세계 각국의 청소년 및 대학생을 초청,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다.

재단은 올해 참가자들이 단순한 강의청취, 산업시찰, 유적지 견학 및 관광 차원의 연수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현장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강한 모국인상'을 경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차리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에 6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연수에 400명 등 총 1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경근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한류(韓流)와 한국의 성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 간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가는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만13세~23세(2012.7.1기준)의 동포청소년,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7일~4월 6일까지로 현지 공관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는 2011년 총 7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대구, 대전, 안동, 평택, 속초, 춘천, 논산, 연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됐다.

| 재단 뉴스레터 제호 공모 결과

최종 당선작 및 당선자명

1등 : 재외동포의 창(인천시 부평구 황선례)

2등 : 한in글로벌(서울 동대문구 김기섭)

3등 : 한인광장(경기 고양시 김지연)

재단 뉴스레터인 '한인네트워크'의 신규제호 공모가 지난 1.27~2.20일까지 재단 웹사이트인 코리아넷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외 총 350건의 응모가 접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재외동포의 창(황선례, 인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독자 후기를 받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외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면을 꾸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창'을 읽으신 후 내용 등에 대한 감상 및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독 요청이나 주소

변경 요청 등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 3분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pr@okf.or.kr(매월 20일까지)

세계인의 꿈과 바다 이야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입장권 안내)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경로어린이 19,000원
- 팸일 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경로어린이 13,000원
-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입장권 구매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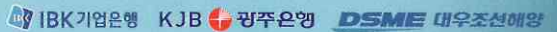
(입장권 구매처)

-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 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
- 전화예매 | 1577-1763(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부) / 1544-1555(인터파크)

Official Global Partners



Official Partners



Official Spon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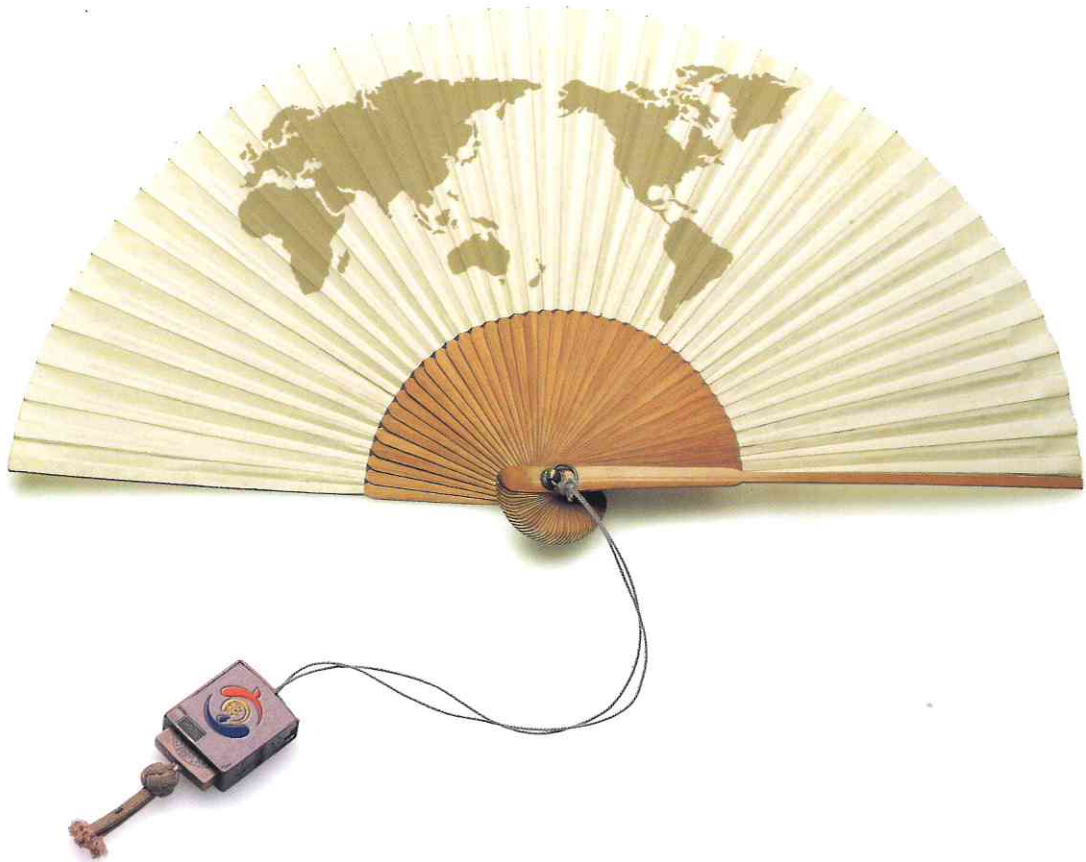


Official Suppliers



Official On-line shopping Mall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날로 늘어나는 재외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